

출향 서화인
홍성 초대전

출향 서화인 홍성초대전



초대일시	2014. 9. 26 오후 2시
전시기간	2014. 9. 26 - 2014. 10. 12
전시장소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주 최	홍성문화원
주 관	출향 서화인 홍성초대전 추진위원회
후 원	홍성군 · 홍성군의회

인사말씀



무덥던 여름의 기세도 가을 앞에 한풀 꺾이고, 땀흘려 가꾼 노력과 열정이 풍요와 보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때를 맞아 출향서화인 초대전을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타향에서 예술가의 외길인생을 걸으며 절차탁마한 작품을 출품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작품들이 고향의 높푸른 하늘 아래에서 꽃피우고, 인정이 넘치는 홍성군민들께서 감상하고 소장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초대전은 김석환 군수님과 이상근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와 성원의 결실이어서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환동 문화원장님과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홍주는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암담할 때 애국충정으로 헌신하신 훌륭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염원으로, 2013년 충남도청이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홍성에서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홍주목의 역사 문화적 사실과 옛 명성이 재조명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소명이기도 합니다.

홍주인은 은근과 끈기 그리고 정의로운 기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붓은 칼보다 유려한 精氣가 서려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문화융성으로 치유되는 아름다운 사회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초대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高節群梅動 名區處處開 洪州香氣滿 同樂與民裁 (높은 절개 지닌 봉우리진 매화, 이 고장 이름난 승지 곳곳에 피어나니 홍주 골에 향기 가득하고 홍성군민이 즐거움 함께 하네) - 自作 詩 一首를 소개합니다.

2014년 9월
추진위원장 박 상 현

축 사

존경하는 출향작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흔쾌히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하신 여러분들의 품격 높은 서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계시지만 고향 홍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고 출향 서화인 홍성초대전을 추진해 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유환동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초대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출향 서화인들의 작품 전시회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소중한 작품 판매 수익금을 모두 후진양성을 위한 홍성사랑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신다고 하니 더욱 따뜻하고 빛나는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출향 서화인들의 열정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례적으로 이어져 예술 문화와 나눔 문화를 공유하는, 사랑의 전시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애향심으로 지역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신 출향 서화인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오늘의 이 따뜻한 사랑을 가슴 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홍성군수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빛 짙게 물들어 가는 계절에 『출향 서화인 홍성 초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고향 홍성을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수준 높은 서화전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박상현 출향 서화인 홍성초대전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출향 서화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홍성이 수준높은 문화예술 고장으로서 면모를 이어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우리 홍성 출향 예술인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잊지 않고 예술 혼 깊은 창작활동을 펼쳐 오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군민들께 작품 감상의 기회까지 주셔서 더욱 고마운 마음입니다.

전문가나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멀게만 느껴졌던 서화의 세계를 주민들께 보다 쉽고 친근한 일상의 느낌으로 전해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중견 출향 서화인 25분의 작품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감동과 함께 문화예술의 세계를 향한 새로운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보람된 작품 활동을 하시고, 다들 명망있는 작가로서의 명성 또한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작품감상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출향인 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전시회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홍성군의회 의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홍성문화원장 유환동입니다.

풍요와 낭만의 계절 가을의 초입에 묵향 가득한 “출향 서화인 홍성초대전”을 홍성문화원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돼 가는 세상에 진정한 심표가 필요하다면 묵향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붓끝을 놓지 않고 정진해 준 박상현 회장님을 비롯한 출향작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 홍성의 문화를 더욱 융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우리지역 출신 서화인들께서 혼과 열정이 가득 담긴 작품을 기증해 주셔서 전시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돕기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출향작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뜻깊은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군수님,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 글씨, 그림이 어우러지는 작품에 담긴 맑고 향기로운 정신으로 마음의 평온함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2014년 9월
홍성문화원장 유 환 동

一筆不放是春蒼友菊園
 古今賢問句

古今賢問句



只山 金榮晩

- 대한민국서예대상 수상 및 심사위원 역임(미술협회)
- 서예대전 대상 수상 및 심사위원 역임(미술문화원)
- 대한민국 서예공모대전 대상 수상(서예진흥협회) 및 심사위원장 역임
-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 역임(한국서예협회)
- 북관대첩비 이모비 복원(문화재청), 홍국선사비 복원(보 446호)
- 의안대군 신도비 및 묘비문 휘호(약 3,200자)
- 경기도미술협회 이사, 1989~ 지산서예연구실 주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수레로 9번길 13번지 아이비타워 105호
 자. 031-577-2127 / H.P. 010-4316-1625 / E-mail. hangoat@hanmail.net



龍飛鳳舞

자녀들과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것이 율례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제명이니
 이 곧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감오입후 에베소서 가삼김용관

에베소서



佳山 金容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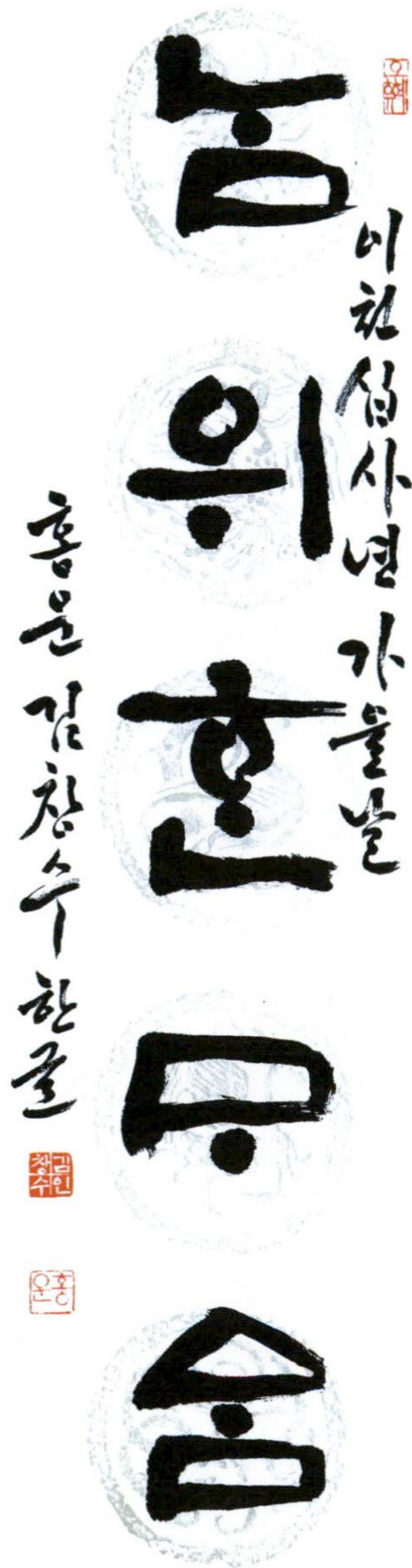
- 대한민국서예대전(국전) 초대작가
- 국전 심사위원 역임
- 서울·대구시전 및 도전 심사 20여회
- 대한주부클럽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주 독일대사관 초청전 등 50여회 초대전 출품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교육문화)
- 한국서예협회 한글분과 위원장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666, 삼익1차상가 309호

자. 02-3426-7264 / H.P. 010-5544-1876 / E-mail. kasanbc@hanmail.net

아침에 상계 어 일 어 날 누워 있으시니 감사하라 어 제를 위하
 오늘을 살지 말며 내 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 누워 있이 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필모한 만우하며 주학을 알 아
 청신척으로 나를 질척으로 빚지 말라 저녁에 상 자 리 에
 들며 그날의 삶을 감사하라 이범선님을 가상 김용관





남을 위한 마음



弘雲 金昌洙

- 금서슬화 부부전(2005. 백악미술관)
- 금서슬화 가족선면전(2010. 백악. 한국미술관)
- 제5대 국새모형 공모 인문부문 우수작 입상(행정안전부)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운영위원 역임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대학원 강사 역임
- 내포문화연구원장. 홍성문화원 서예 출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17동 110호(대치동 은마A.)
 자. 02-553-6926 / H.P. 010-4303-6926

盡人事而待天命

甲午元月五日

天賜高人弘雲書

雀出佩肥都賞
 傳曰服衣得賜
 中女良輕良
 瑩當儉者相田
 年見豹不久皆
 金屢商典固
 十如至如兵辭
 六石空犬權不
 父八天豕開受
 雍終見難節
 氣身棄身行

甲子五秋江青石陽高堂人弘雲金昂沐謹書



崔侍中謫年十六父桓戒之曰如
 當見金如石公終身佩之信如
 廣至宮之見京兆知經者不棄如
 大函雖才却將相久典兵權拜節
 少以常賜民田皆因節不受
 甲子年秋月五日天陽金如石謹書

佳氣滿高堂

佑耕 金和蘭

佳氣滿高堂



佑耕 金和蘭

-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인권서예전람회 대상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
- 서예대전(월간 서예) 초대작가
- 대한민국광명시서예한마당 최우수상, 초대작가
- 대한민국서예회호대회(학원연합) 초대작가
- 일월서단 회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202(대림동)
자. 02-2682-9829 / H.P. 010-9401-9715

山 秋

靜 清

松 泉

聲 氣

遠 香

金和蘭

金和蘭





月泉 金後男

- 대한민국 시서문학 발행인
- 고려대학교 서예문인화 최고 과정 강의 역임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서예문화 서울교육관 詩와 書藝 강의 역임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한국육필문예보존회 이사
- 사)한국예술문화원 아카데미 시.서.화 운영
-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및 시흥지회 부회장
-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사업분과 부위원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504번길 9, 302호(거모동보우A.)
H.P. 010-3794-7901 / E-mail. khunam2@hanmail.net

一切唯心造

甲午秋
月泉

王戎之秋七月既望蘇子與客汎舟遊於赤壁之下清風徐來水波不興舉酒屬客誦明月之詩歌窈窕之章少焉月出於東山之上徘徊於斗之間白露橫江水光接天縱一苇之如
酒萬頃之茫然浩浩乎如憑虛御風而不知其所之飄飄乎如遺世獨立羽化而登仙於是引
酒樂甚扣舷而歌之歌曰桂棹兮蘭槳空明兮渾流光渺兮音餘懷望美人兮天一方客有
以洞簫者倚歌而和之其聲嗚咽然如怨如慕如泣如訴余亦悄然而悲慨然不能成韻
於孤舟之嫠婦蘇子愀然正襟危坐而問客曰何為其然也客曰月明星稀霜華白艤南飛此非曹
孟德之詩乎西望夏口東望武昌山川相繆鬱乎蒼蒼此非孟德之困於周郎者乎方其破荊
州下江陵順流而下
赤壁賦
蘇軾
壬午之隆也予在黃岡時遇此景因作此賦後五年九月十五日復過黃岡時又遇此景故再作之
蘇軾
錄宋璧賦句二千十四年甲午卷之三節一研齋書

赤壁賦



- 연세대학교 행정학석사(행정대학원 졸업, 법무대학원 수료)
-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학술위원 역임
- 국민예술협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서울지회 부회장
- 한·중서화부흥협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역임
- 님의침묵 서예대전(2011) 심사위원장 역임
- 한국예술문화원 이사. 일월서단전. 파리전. 미국시카고전 등 다수
- 한국전례원 명예교수. 재경홍성군민회. 홍성고교동문회 상임교문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134. 4동 606호(본동신동아A.)

자. 02-3280-5848 / H.P. 010-2336-5842 / E-mail. pshwoochon@naver.com

此祝汝城郡出鄉書畫人招待展
文曰汝州予我魄招待墨文張
此地儒風畫畫暢達場觀以喜
予喜을 감히 喜는 향신 화인 凡

洪州千載魄招待墨文張

베를 엮네 이 승지에 유득을 일으키고서 화창날의 장이 되길
 二千十三年甲午冬 沈城出郷書 画人 研塾齋 东窓下 友村吟

有忠有存難
有孝有忠難
二者已盡得
況又救身難

彫村黃喜政丞詩 友村謹書



紅梅開處禪初台
 白雨過時茶半清
 雲設席
 溪亦茶
 自半
 笑清
 傳思
 墨憶
 陶淵明
 錄萬海禪師
 訪友村朴商賢



紅梅



王竹圖



白江 朴洙珍

- 사단법인 한국예술협회 이사장
-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국전 문인화 부문 우수상 수상)
- 한겨레 광개토태왕 예술협회 회장
- 한국서가협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파주지부장 역임
- 전국율곡서예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 한국서가협회 경기·대전·충남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 한국예술문화상, 율곡서예상, 고구려예술상, 공주명예시장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0-1, 102호(대조동) 솔마당서예학원
 자. 02-385-3676 / H.P. 010-7186-3676

事終能無
不有百愿
三思
忍人自思

二千一十四年
秋
長江 卞壽吉

신중히 생각
하지 않는 것
작한 일은 끝
내 후회할 때
가 있게 될 것
이므로 남의
보좌하느라
번이 드는
히 착아
수임어아장
래에 근심
일이 생기지
않는다

三思百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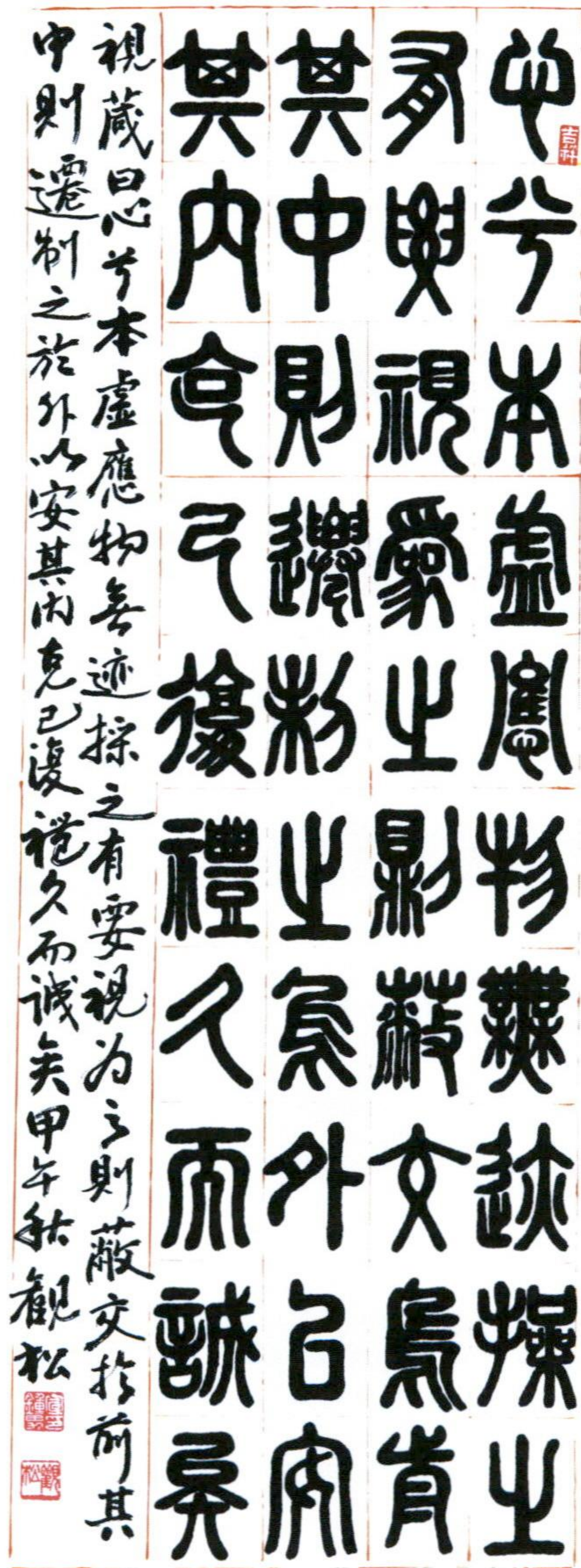
- 국전 및 대한민국미술대전(한국미협) 입선 5회, 특선 2회
- 한국미술협회 서예부문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장 등 5회 역임
- 대한민국서예문인회 원로작가 총연·일월서단·아묵회 회원
- 한국서예 100인 초대전 출품
- 한글서예대표작가전, BESETO 국제서화전 등 출품
- 전임대통령 및 현대서예가 100인 초대전 출품

충남 홍성군 내포로 196. 6-32

長江 卞壽吉

자. 041-634-1433 / H.P. 010-2837-1433 / E-mail. bsk1433@hanmail.ne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
- 대한민국국민예술협회 초대작가
- 충청서도대전 초대작가
- 한국백제서화협회 초대작가
- 한국추사서예협회 초대작가
- 경기서도대전 초대작가
- 한국서예충남지회 초대작가

대전시 서구 용화6길 15(도마1동)
 자. 042-522-2447 / H.P. 010-3235-2447



萬事如意



玄谷 申明燮

-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홍제미술대전 입선
- 현대가훈보급협회 회장
- 전국 시·도청사, 군부대, 병원 등 가훈써주기 행사 수 백회
-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하이닉스반도체 등 초대전
- 전국 25만가정 가훈보급(1991-2014)
- 전국문화행사 초대 소망의 글 써주기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20길 202-1704

자. 02-857-2115 / H.P. 010-3899-7208 / E-mail. sms12777@hanmail.net

一桐
生千年
寒不老
不賣恒
香藏曲
玄谷
梅

[illegible]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나룻배와 행인을 접다



적막항로샘에갈머리의바람은세찬데
 갈끝에찬서리가고국생각을돌구누나
 삼천리금수강산에왜놈이뭇밭인가
 단장의아름바음스러버릴길없구나

백야 김좌진 장군 어록 단장지통을쓰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사랑하는 까닭을 적다

만해 한용운 선생 시



至誠無息



青山 安秉喆

-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 역임
-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 동방서법탐원회 초대 총회장 역임
- 일월서단 회장
- 충청향우회 중앙회 부총재 1지도위원

서울시 동장구 대방동 501 대림A, 109동 302호
 자. 02-813-4792 / H.P. 011-744-4792

有志者事竟成

甲午立秋弟 佳平 尹錫明

有志者事竟成



佳平 尹錫明

- 석천연서회 회장
- 사)한국서화작가협회 부회장, 대전지부장
- 사)한국추사체연구회 부회장, 대전지부장
- 충청서도협회 이사
- 사)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
- 한국서예연구회 초대작가
- 갑자서회 회원

대전시 동구 성동로 74, 101-1109(자양동, 동아A.)
H.P. 010-7727-2165 / E-mail. ysm4914@hanmail.net

形端影岑曲源潔海新清
修才可高家老物由不謀

錄圃隱先生詩 甲午立春節 佳平尹錫明



작일년은 오시니 밤과와 불은 주일간 괴후 대령을 시운은 야아음은 저모와
 며 대강저음사와 년강저음처 양녕을 오시니 홀후와 호음은 이나
 라 저음처는 회로안입을 홀후와 일의는 극한이 못되 구경은 잘 못 홀후시운은 양
 일로성홀후시운나 나가올서 강외나 아니 어두신은 양홀후시나 금금보립
 지 못홀와 홀후야 상중의는 나 대령취온잇가 예는 온제절 양홀후시운은
 상홀후 양은 대령홀후시오니 경홀후와 홀후야 전은 강외로홀후 나지 못홀후나
 어찌까지 나니 올나 오를 아니 올나 강외홀후나 일의가 홀후홀후시오니 강외황
 홀후와 홀후니 이나 기홀입을 절구를 강외상홀후를 씨본 받아 쓴 구안

封書



龜巖 尹永祚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1977)
- 국전 초대작가(1991)
- 대전국립묘지 호국경귀비 휘호(대전-1993)
- 만해 선생 생가 시비 휘호(홍성-2005)
- 공무원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2007)
- 전북서예비엔날레 출품(전주-2003)
-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이사

서울시 양천구 목사동 중앙남로 46. 목동미소래A.1-105(구암서당)
 자. 02-2643-3993 / H.P. 016-267-3993

獨上高峰復長久
望中遠滄海小於區

西山大師詩望高臺云獨立高峰頂長天鳥去來望中秋色
遠滄海小於區
癸巳秋分
龜巖

甲子小酒節
易地思之
人

易地思之

易地思之



長巖 李坤淳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역임
-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예술 1998)
- 대전시립미술관 초대개인전 개최(2008)
- 현 사)일중김충현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 현 사)한국미술협회 고문
- 현 사)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고문
- 사)보문연서회 이사장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45(중촌동 중도상가 410호)

자. 042-256-7720 / H.P. 010-8255-7720 / E-mail. leejangam@hanmail.net

行旅知多少閑人似我稀
 愛山隨處駐得句獸吟歸
 僧院秋方至官塗露未晞
 會當容此膝江上有魚磯

錄雙梅堂先生詩甲午仲秋節後孫李栽春

雙梅堂 先生 詩



彫岩 李栽春

- 청람 연목회 부회장
- 각종 공모전 다수 출품
- 청람 연목회전 출품
- 그룹전 초대전 다수 출품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221-28 홈피아 104호
 자. 02-7574-3893 / H.P. 010-2004-3161

中天生鶴穴
 秋宵千載
 雲已穿
 明月洞門
 流水
 去來知何處
 武陵橋

甲子之秋
 鶴字達先生詩
 伽倻山
 丹警林承述

伽倻山



丹警 林承述

- 세계직지문자서예대전 최우수상,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우수상, 초대작가
-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
-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 충청서도 초대작가 겸 이사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50번길 53, 109동 702호(한화꿈에그린A.)
 H.P. 010-4787-9314



剋念作聖



豚來



鶴山 全遇千

- 사)한국예술문화원 이사장
- 전문예술강사자격증 발급운영위원회 위원장
- 광화문광장(서예체험)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 초대 개인전(예술의전당, 서울 서예박물관)
- COEX Convention Center초청작가(예술의전당 현장 휘호)
- 대한민국서예대전, 서울특별시전, 경기도전 심사위원 역임 및 서협 초대작가 외 다수
- 각종 공모전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다수 역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길5(파고다빌딩) 403호

자. 02-720-1239 / H.P. 010-9005-5960 / E-mail. haksan5960@hanmail.net

[illegible]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



異人 鄭京愛

- 대한민국서도대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
- 대한민국서도협회 대전·충남지회 사무국장
- 충청남도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
-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협회 대전지회장
- 백제세종서예대전, 매죽헌서예대전 성균관유도회 심사 역임
- 대한민국미술협회 회원, 충청서단 회원
- 이인서예연구실 운영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65 이인서예연구실
H.P. 010-2717-0333



錦江虹



箕山 鄭莫熙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 대전·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역임
- 선화기독교 미술관장
- 정명희미술관 명예관장
- 소야장학재단 이사장
- 대전국제교류전 이사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97번길 14-21 엔하고레움 401호
 자. 042-254-1401 / H.P. 010-8800-7986

松栢芳馨日思情与海深
江南幸与断中夜智傷心

錄李梅窓詩故人甲午第秋節鶴山程容文

李梅窓 詩 故人



鶴山 程容文

-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 충청서도대전 사무이사, 운영위원, 심사위원
- 부·경 서도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전북서도대전 심사위원 역임
- 한국서예협회 충남지회 초대작가
- 서울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초대작가상 수상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465번길 40(가장동)
자. 042-533-4008 / H.P. 010-9972-5335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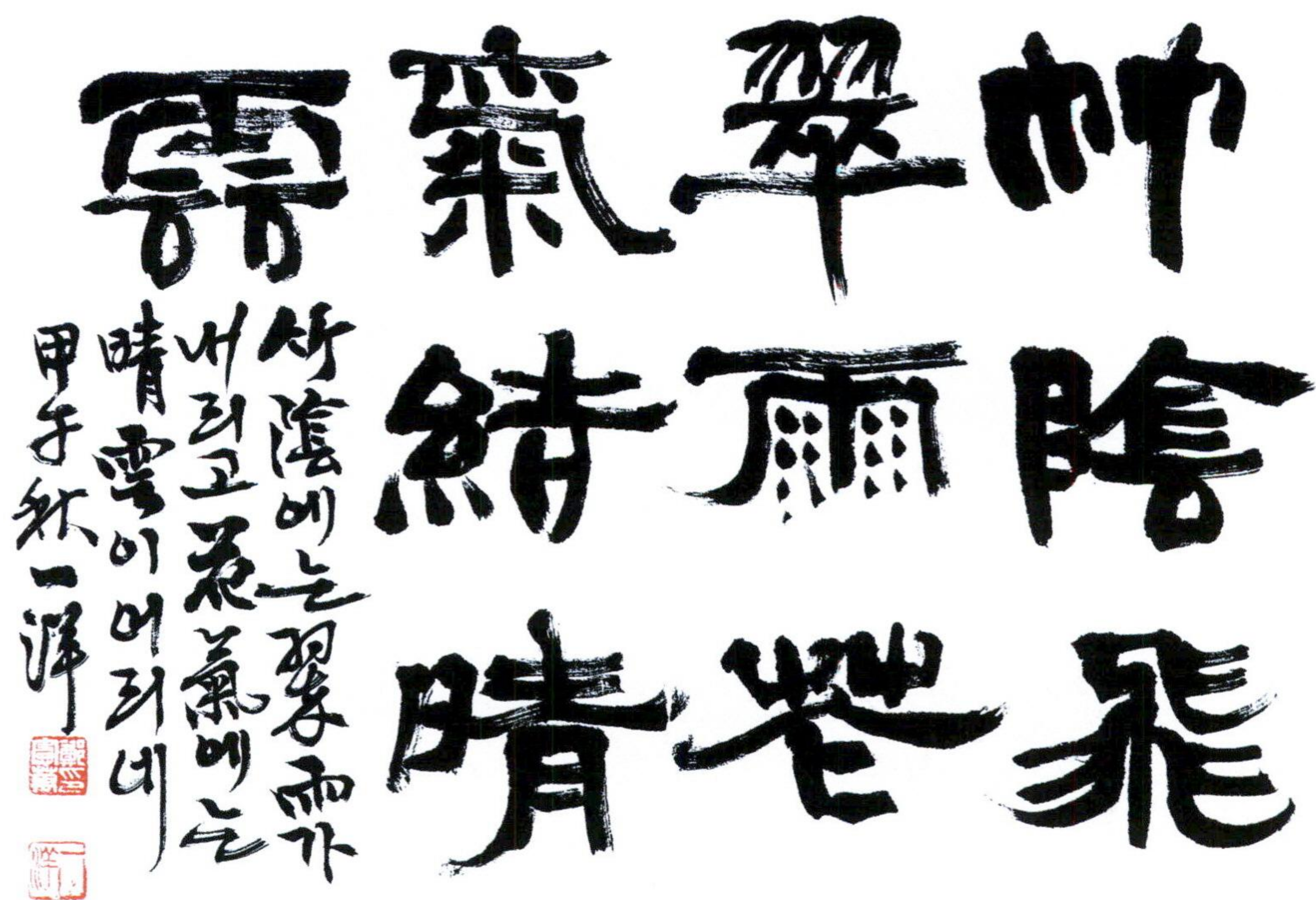
好人一生平安



一洋 鄭憲萬

-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 대학원 서예문자예술전공 석사
- 한국서가협회 이사(현)
- 한국서화작가협회 상임부회장
- 사)한국서가협회 경기도 지회장
- 일원서단전 서가협회전, 금화묵림전 출품
- 서예대전(월간서예 심사), 전국울곡서예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일양서예학원 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55-24
자. 02-843-7487 / H.P. 010-3462-2553



竹陰. 花氣

東嶺風初急 西峰月底時
禪心唯寂寂 夜色轉清奇
露冷庭聲緊 更深燈燼垂
秋涼生夢寐 此境有誰知

鉢梅月堂先生詩 甲午秋 松齋 趙成植

梅月堂 詩



松齋 趙成植

-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
- 한국서도경기지회 초대작가
- 한국서도충청지회 초대작가
- 한국서도전북지회 초대작가
- 고불서화협회 초대작가
- 한국서예 4단체 초대전 출품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80, 205동 1803호(관저동 원앙A.)
H.P. 010-5458-8276

堅幽共重 菊人討陽 生方盍明 秋獨徘徊 沔勝無日 寒香終是 意有飛上 自同世崢 清盟情嶸

甲午秋 牧隱先生 趙曰鎬 白山

李穡 先生 詩



白山 趙曰鎬

- 한국미협 초대작가
- 한국미협 심사위원 역임
- 한국미협 이사 역임
- 양소헌 회원
- 초대전 그룹전 다수 출품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869-56
 자. 02-2604-3452 / H.P. 010-3738-0686

来时先我求去时先求去珍重辨
师兄真獨舉一我豈久存浮生
如送旅觀去住返蹤不得絲毫許
甲午秋報可禪師計禪師趙白山鵬

甲午菊秋
錄梅竹軒先生訪
重山趙泰洙

擊鼓催人命

梅竹軒 先生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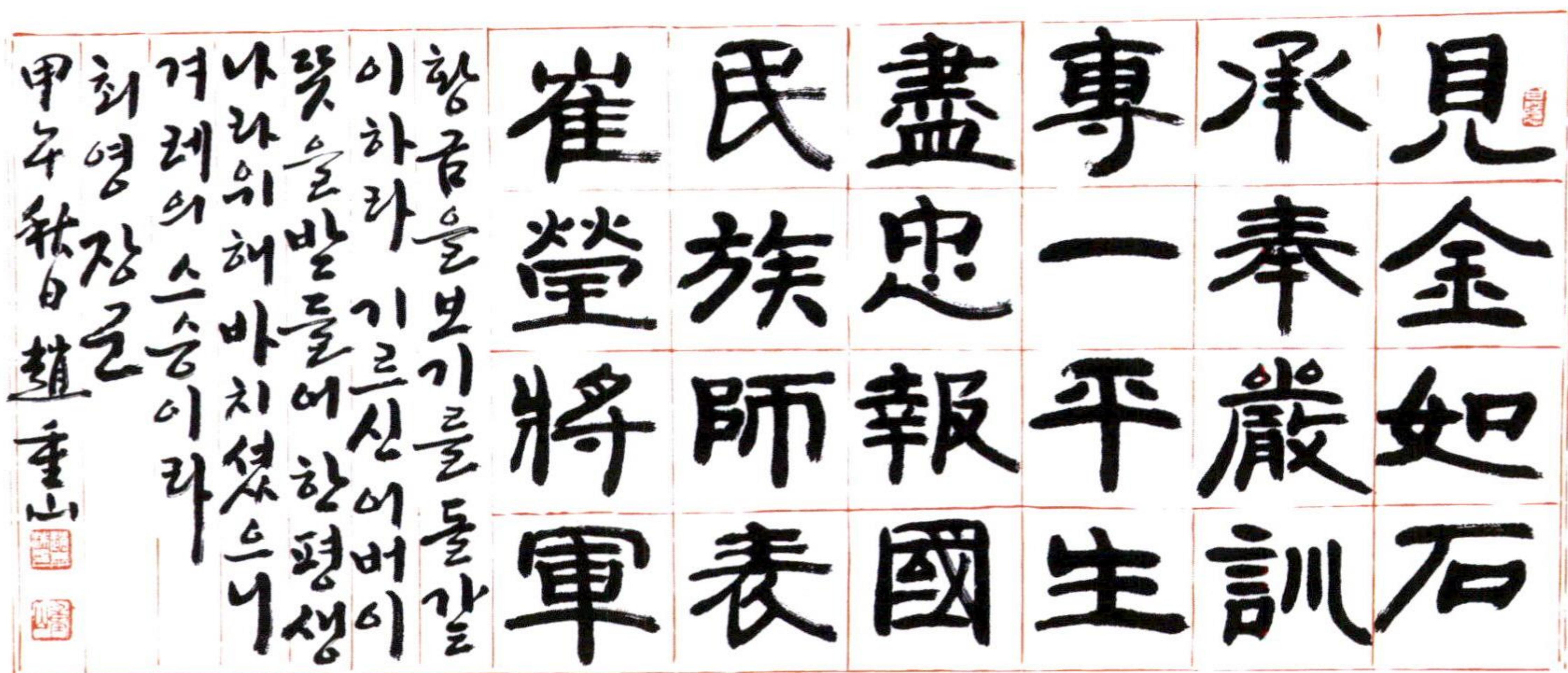
- 한국서도협회 부회장 겸 대전·충남지회장
-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한국서도문화상 수상, 대전광역시 예술상 수상
- 저서 『한묵기행』, 『중산필서집』
- 개인전 3회, 한국미술관(2007), 대전갤러리(2014), 홍성문화원(2014)
- 일월서단, 근역서가회, 충청서단, 문학사랑협의회, 대전문인협회, 한밭수필가협회 회원
- 충청서도대전 운영대회장

重山 趙泰洙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1-1(선화동 228-9)
 자. 042-257-5011 / H.P. 010-3447-5011 / E-mail. su5011@hanmail.net

梅花何家在雪裏多江村
今生寒水骨前方白玉魂
形容盡亦奇精神疑不昏
去風散鐵笛暖日入禪園

錄正海先生詩甲午秋重山趙泰洙



崔瑩 將軍 노래(漢 譯)

높은 이상 힘찬 전진

남철 황승덕  

높은 이상 힘찬 전진

작품해설

只山 金容晩

1) 古今賢問句

一花獨放不是春 百花齊放春滿園

꽃 한송이 피었다고 봄이 된 것이 아니라 꽃이 만발해야 비로소 봄이 온 것이다.

2) 龍飛鳳舞

용이 날고 봉이 춤을 추다.

佳山 金容館

1) 에베소서

2) 이범선님 글

弘雲 金昌洙

1) 남을 위한 마음

2) 盡人事而待天命

사람으로써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3) 見金如石(예서)

崔侍中瑩年十六 父雍戒之曰 女當見金如石 公終身佩服服 食儉約 屢至空乏 見乘肥衣輕者不啻如犬豕 雖身都將相 久典兵權關節 不行賞賜 民田皆固辭不受

최시중 영이 나이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옹께서 그를 훈계하여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였다. 그 뒤 공께서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을 검소하고 절약하게 해서 여러번에 걸쳐 집안에는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없어 텅텅 비어있는 형편에 이르렀다. 그는 평소에 살찐 말을 타거나 좋은 비단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개나 돼지와 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비록 그의 신분이 장수와 재상에 이르고 오랫동안 병권을 맡아보았어도 뇌물을 주고 받는 등의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나라에서 상으로 내려준 일할 사람이나 땅을 다 고사하여 받지 않았다.

4) 見金如石(행서)

작품해설 위와 같음.

佑耕 金和蘭

1) 佳氣滿高堂

아름다운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다.

2) 山靜松聲遠 秋清泉氣香

고요한 솔바람 소리 멀리 들리고 맑은 가을샘 공기도 향기를 느끼게 한다.



月泉 金後男 1) 淸蓮

2) 一切唯心造

모든 일은 오직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友村 朴商賢 1) 赤壁賦

임술(壬戌)년 가을 칠월 열 엿새. 나는 객(客)과 더불어 배를 띄우고 적벽(赤壁) 아래에서 놀았다. 맑은 바람 서서히 불어와 물결 일지 않는데 잔 들어 객에게 권하며 명월(明月) 시를 노래하는데 곧 달이 동산 위로 솟더니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배회한다. 흰 이슬이 강물 위에 비껴 내리고 물빛은 하늘에 닿아있다. 한조각 작은 배 가는대로 내어 맡겨 망망한 만경창파를 건너간다. 넓고도 넓은 것이 허공타고 바람을 모는 듯 그 머무는 곳을 모르겠고 가벼이 떠올라 속세를 버리고 우뚝 솟은 듯 날개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는 듯했다.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하기를 “계수나무 노와 목란 상앗대로” 물에 비친 달그림자를 치며 달빛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넓고 아득한 나의 마음이어 하늘 저 끝에 있는 임을 그리도다. 객 중에 통소 부는 사람이 있어 노래에 맞춰 반주하니 그 소리 구슬퍼서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흐느끼는 듯 하소연하는 듯 여음(餘音)이 가냘프고 길게 이어져 실가닥처럼 끊어지지 않으니 깊은 골짜기에 잠겨있는 용을 일어나 춤추게 하고 외로운 배의 과부를 울릴듯하다.

나는 얼굴 빛을 바꾸고 옷깃을 여미고는 고쳐 앉으며 객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슬프오?” 객이 말했다. “달 밝으니 별은 드물게 보이고 까막까치 남으로 날아가네. 학 읊은 것은 조조(曹操)의 시가 아니오? 서쪽으로 하구(夏口)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武昌)을 바라보니 산천은 서로 뒤엉켜서 울울창창 우거져 있는데 이곳은 바로 조조가 주유(周瑜)에게 곤욕을 치렀던 그 곳이 아니오? 그가 막 형주(荊州)를 파하고 강릉(江陵)으로 내려와 물결 따라 동쪽으로 내려갈 때 배는 꼬리를 물고 천리에 이어졌고 깃발들은 하늘을 뒤덮었는데 강물을 대하여 술 따르며 긴 창 비껴들고 시를 지었으니 참으로 일세(一世)의 영웅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나와 그대는 강가에서 고기잡고 나무하며 물고기 새우들과 짝하고 고라니 사슴들과 벗하며 일엽편주 타고 쪽박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며 하루살이 같은 목숨으로 천지간에 붙어 있으니 망망한 바다 속의 한 알의 좁쌀처럼 보잘것 없소. 우리 삶이 잠깐임이 슬프고 장강(長江)은 끝없음이 부러워서 하늘 나는 신선과 어울려 즐거이 놀고 밝은 달을 안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



나 그것이 쉽사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고 서글픈 여음을 슬픈 가을 바람에 실어본거라고.”

내가 말했다. “그대도 저 물과 달을 알고 있소?” 가는 것은 이와 같이 쉬지 않고 흐르지만 영영 흘러가버리는 것이 아니요, 차고 이지러지는 것은 저 달과 같지만 끝내 아주 없어지지도 더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천지간에 한 순간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만물과 나는 모두 무궁한 것이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겠소? 게다가 천지 사이의 모든 사물은 각기 그 주인이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면 털끝 하나라도 취할 수 없지만 오직 강 위를 부는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뜨는 밝은 달은 귀로 들어 오면 소리가 되고 눈에 담겨지면 색깔을 이룩하는데 이를 취하여도 막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소. 이는 조물주가 주신 무진장한 보배이며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이요.” 객이 기뻐 웃으며 잔 씻어 다시 술 따른다. 안주가 이미 바닥나고 술잔과 쟁반은 어지러이 흩어졌다. 서로를 베개삼아 배 안에 누우니 동녘이 이미 밝아오고 있는 것도 모른다.

2) 祝 洪城招待書畫展

洪州千載魄 招待墨文張 此地儒風盛 書畫暢達場

천년홍주 혼을 담아 출향 서화인전 베풀었네 이 승지에 유품을 일으키고 서화 창달의 장이 되길.

3) 厓村 黃喜 政丞 詩

有忠有孝難 有孝有忠難 二者已兼得 況又殺身難

충성은 있어도 효도는 있기 어렵고 효도는 있어도 충성은 있기 어려운데
충과 효 두가지를 다 갖고서도 하물며 어렵게 또 살신성인까지 했구나.

4) 卍海禪師 詩

紅梅開處禪初合 白雨過時茶半清 虛設虎溪亦自笑 停思還憶陶淵明

홍매꽃이 벌어 중은 삼매에 들고 소낙비 지나가며 차도 한결 맛이 맑아 호계까지
전송하고 크게 웃나니! 잠시 도연명의 인품 그리어보네.

5) 紅梅 - 鄉民同樂

高節群梅動 名區處處開 洪州香氣滿 同樂與民裁

고매한 절개 지닌 매화들 일찍 깨어나 고향의 경치 좋은 곳곳에 천년 홍주 골에
매향이 가득하니 군민들과 즐거움 함께 하는구나.



白江 朴洙珍 1) 王竹圖

長江 卞壽吉 1) 三思百忍

事不三思 終有悔 人能百忍 自無憂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끝내 후회할 때가 있을 것ियो 난관에 봉착하면 백번이라도 능히 참아낼 수 있어야 장래에 근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2) 나옹선사시

觀松 宣鍾男 1) 視箴句

心兮本虛 應物無迹 操之有要 視爲之則 蔽交於前 其中則遷 制之於外 以安其內 克己復禮 久而誠矣

사람의 마음은 본래 빈 것이라 外物에 應하여도 그 形跡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마음을 操守함에 요령이 있으니.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킴의 준칙이 된다. 만일 올바로 보는 것을가리는 것이 눈앞에 엇갈리면 그 사물에 끌려서 그 마음이 變遷한다. 그러므로 밖에서 마음을 迷惑케 하는 것을 억제하여 안에 있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私慾을 克服하여 사람의 바른 행위의 규범인 禮로 돌아가면 오랜 수양 뒤에는 마음에 거짓이 없어지게 된다.

玄谷 申明燮 1) 萬事如意

만사가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

2) 桐千年老恒藏曲 梅一生寒不梅香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곡조를 간직하고 있고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3) 만해 한용운 선생 시

4) 백야 김좌진 장군 어록

5) 만해 한용운 선생 시

靑山 安秉喆 1) 至誠無息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천리운행의 이치로 쉬없는 정성으로 사람과 하늘을 감동시킨다.)



佳平 尹錫明

1) 有志者事竟成

뜻이 있는 자는 마침내 이룰 수 있다.

2) 形端影豈曲 源潔流欺清 修身可齋家 無物由不誠

형이 단정하면 그림자가 굽을 수 없고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물 또한 맑다. 수신 후 제가가 가능하며 만물은 정성이 들지 않는 것이 없다.

龜巖 尹永祚

1) 封書

2) 西山大師 詩

獨立高峰頂 長天鳥去來 望中秋色遠 滄海小於杯

높은 봉우리에 혼자 서니 넓은 하늘에는 새만 오가고 보이는건 아득한 가을빛 푸른 바다가 잔 보다 적구나.

長巖 李坤淳

1) 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다.

彤巖 李栽春

1) 雙梅堂 先生 詩

行旅知多少 閑人似我稀 愛山隨處駐 得句獨吟歸

僧院秋方至 官塗露未晞 會當容此膝 江上有魚磯

여행하는 이 얼마인가, 나처럼 한가로운 사람도 드물리라. 산을 좋아하니 곳곳에 발을 멈추고 시귀를 얻어 혼자 읊으며 돌아간다. 산절간에는 가을이 바야흐로 이르고 한길에는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네. 마침내 이 한 몸 부칠만한 데는 강 위에 낚시터가 있구나.

丹警 林承述

1) 加儼山

中天笙鶴下秋宵 千載孤雲已寂寥 明月洞門流水去 不知何處武陵橋

중천의 학은 가을 밤에 내려오고, 쓸쓸한 천년 외로운 구름, 물에는 밝은 달 흘러가는데, 무릉다리는 어디에 있나.

2) 剋念作聖

자갈한 생각을 이겨나가면 성인이 될 수 있다.



鶴山 全遇千 1) 豚來
재물이 나에게 들어온다.

異人 鄭京愛 1)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

箕山 鄭莫熙 1) 錦江虹

鶴山 程容文 1) 李梅窓 詩 故人
松栢芳盟日 恩情與海深 江南青鳥斷 中夜獨傷心
소나무처럼 늘 푸르자 맹서 했던 날 우리의 사랑은 바닷속처럼 깊기만 했어라.
강건너 멀리 떠난 님께서는 소식도 끊어졌으니 밤마다 아픈 마음은 나 홀로 어이
할까나.
2) 추구집 계몽편 풀이

一洋 鄭憲萬 1) 好人一生平安
좋은 분들 일생동안 평안하다.
2) 竹陰飛翠雨 花氣結晴雲
죽음(竹陰)에는 취우가 내리고 화기에는 청운이 어리네.

松齋 趙成植 1) 梅月堂 先生 詩
東嶺風初急 西峯月落時 禪心唯寂寞 夜色轉清奇
露冷雁聲緊 更深燈燼垂 枕涼無夢寐 此境有誰知
동쪽고개 부는 바람 처음 급하면, 서쪽 봉엔 달이 떨어질 때다.
선하는 마음으로 적막뿐인데, 달빛은 도리어 맑고 기이하구나.
이슬이 차니 기러기 소리 급하고, 밤이 깊으니 등불은 깜박거리네.
베개마다 서늘하여 잠 못 이루는데, 이런 경지 속마음을 누가 알아주리.

白山 趙日鎬 1) 李穡 先生 詩 野菊
野菊生秋澗 寒香意自清 幽人方獨往 勝友有同盟
共討登仙術 俄生不世情 重陽明日是 無路上峰嶸
들국화가 가을 냇가에 피어, 싸늘한 향기는 스스로 맑다.
유인을 홀로 찾아가는 것은, 뛰어난 벗과 마음 같이 하려



함께 신선술 토론하다보니, 문득 세속 추월한 생각이 나
중양절이 바로 내일이건만, 높은 산을 올라갈 길이 없네.

2) 聞辨禪師訃 - 慧湛眞覺國師

來時先我來 去時先我去

珍重辯師兄 冥冥獨遐舉

而我豈久存 浮世如逆旅

返觀去住蹤 不得絲毫許

올때도 나보다 먼저 왔다가, 갈때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구려.

진중하신 변사형이여, 아득한 길 홀로 멀리 떠나버렸네.

나인들 어찌 오래머물겠는가, 뜬 삶 마치 나그네 집 같거니,

가고 머문 자취 돌이켜 보아도, 털끝만큼도 얻을 수 없네.

重山 趙泰洙

1) 梅竹軒 先生 詩

擊鼓催人命 回頭日欲斜 黃泉無一店 今夜宿誰家

북소리가 인명을 재촉하는구나, 고개를 돌리니 해는 저물어 가네.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밤에는 누구의 집에서 잠을 잘까.

2) 卍海 韓龍雲 先生 詩

梅花何處在 雪裏多江村 今生寒氷骨 前身白玉魂

形容畫亦奇 精神夜不昏 長風散鐵笛 暖日入禪園

매화를 반가이 만나려거든, 그대여 눈썹인 강촌으로 오게.

저렇게 얼음같은 뼈대이거니, 전생에는 백옥의 녀이었던가.

낮에 보면 낮대로 기이한 모습, 밤이라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랴.

긴 바람 피리 타고 멀리 번지고, 따스한 날 선방으로 스미는 향기.

3) 崔瑩 將軍 노래(漢 譯)

見金如石 承奉嚴訓 專一平生 盡忠報國 民族師表 崔瑩將軍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하라, 기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위해 바치셨으니, 겨레의 스승이라 최영 장군

南川 韓昇德

1) 이순신 장군 시

2) 높은 이상 힘찬 전진

출향서화인 홍성 초대전

인쇄일 2014년 9월 20일

발행일 2014년 9월 22일

발행처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TEL. 041-632-3613 / FAX. 041-633-1199

편 집 오늘의문학사

TEL 042-624-2980 FAX 042-628-2983

E-mail _ hs2980@hanmail.net

* 이 도록은 홍성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출향 서화인 홍성초대전